

중앙아시아에서 11월에 드리는 사역 소식

후원자 가족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현장 속에서 가까웠던 사역자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도 듣고 있어서, 이제는 안녕하신지에 대한 인사가 더 진지해 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때로는 멈춰있다고 느낄 정도로 만남과 활동에 큰 변화가 있었던 지난 시간들입니다. 이제 여러 나라의 상황 속에서 점차 일상으로의 회복의 시기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전과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세상과 사회에 시간과 몸은 적응해야 하지만, 위로부터 거듭난 우리의 가치관과 영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더 간구해 봅니다. 그동안 때로는 무모하게 활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축된 관계 속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점차 회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지혜롭고 창조적인 삶의 방식과 내용을 채워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 드림아카데미(한국어 문화 사역)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기관들이 예년보다 2주 늦게 새학기를 대면수업으로 시작했고, 오랜 기간



동안 불규칙적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력수준 저하와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드림아카데미는 주중에 방과후 수업을 3회 실시하고 있는데, 월, 수요일은 온라인 수업으로, 금요일은 대면으로 고려회관에 모여 수업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대면으로만 진행되던 수업과 활동이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게 되어 학생들이 더 활발하고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7명이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5명은 한국으로 나가 9월 학기를 시작하였고, 2명은 내년 3월 개강이라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사로 함께 활동하던 마들렌 선생님은 국가장학생으로 대학원에 합격이 되어 현재 강원대에서 언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 후에는 경희대 대학원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유학생들을 시작한 6명의 학생들이 한국의 일상생활과 대학교에 잘 적응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한국인 사역자 5명과 현지인 교사 3명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교사 중에는 한명이 한국에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어 나가고, 새로 한명의 교사가 합류하였습니다. 새로이 합류한 교사는 저희가 이곳 키르기즈에 처음 왔던 2천년에 대학생이었고, 저희집에서 10개월간 함께 살기도 했던 현지 교사입니다. 이제는 결혼하여 자녀도 3명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드림아카데미의 교사로 합류하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을 통해 한국인 사역자들 2가정이 비자도 받고, 다양한 일들로 함께 협력하고 있어서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체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가운데 고려인 자녀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70년 이상을 이곳 중앙아시아에서 3, 4대째

살아오면서 최근 수년동안 유학이나 취업으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확대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고려인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한국 언어와 문화 수업과 활동을 통해 고려인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유익한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망의 집(노숙인 센터)

소망의 집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름에 독립하여 나갔던 이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옆의 공터에 시에서 임대를 주어 담장을 쌓는 바람에 거주 활동 공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곳 거주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허가해 주는 것만해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목사가 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면서, 틈틈이 거주 공간의 수리와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주자들 가운데 3~4명은 용접, 목공 등 기술을 상당히 습득하여, 전체 관리와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후원받은 재정으로 출입문을 제대로 만들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재료만 사주었고, 알렉산드르 목사가 함께 거주하는 이들과 함께 용접, 재단을 직접하여 출입문을 근사하게 설치 완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만 겨우 드나들던 150센티미터의 낮은 문을 해체하고 크고 넓게 움직여, 자동차도 드나들 수 있도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소망의 집 사람들은 그동안 겸손하게 머리숙이고 들어와야 했는데, 이제는 이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숙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서 거만해 졌다고 하는 농담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3. 번역 및 현지 사역

이번에 목회서신이 책으로 출간되어 출판사에서 막 찾아다가 창고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연합신학교의 좁은 창고는 벌써 자리가 없고, 새로 구한 새언약교회의 컨테이너에도 자체적인 짐들이 많아 공간을 만들어 겨우 옮겨 두었습니다. 앞으로 3권의 책이 각각 1천권씩 인쇄되면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장소를 또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10년이상 이어져온 신약주석 시리즈의 출간이 이제 3권을 남겨두고 있어서 오랜 번역 작업의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와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계시록을 남기고 있는데 히브리서도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신학교에는 10년이상을 교무주임으로 섬기던 타마라 교수님이 갑자기 떠나게 되어 교무주임 자리를 디아나 교수가 지난 여름부터 임시로 맡았는데, 이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사로 신학교 사역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학사 일정과 도서관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무 업무를 담당할 적임자 인 것 같습니다. 학장도 새로 맡는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핵심 사역자들이 책임을 나누어 좋은 팀을 이루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언약교회도 작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오히려 청소년, 청년 사역이 더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포함하면 100여명이 넘기 때문에 예배실이 좁아 예배를 2부로 나누어 드려야 할 정도라서, 러시아어와 키르기즈어로 예배를 나누어 사역을 해야할 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키르기즈어 목회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합당한 사역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모임인 '빅페밀리' 모임이 얼마나 활발하고 열정이 많은지 점점 그 수가 늘어나 교외에 사는 리더들의 집이 장소가 비좁아져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지만 새언약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등 간증들로 감사가 넘쳐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커피존이라는 금요카페를 다시 열어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자 부부를 도우면서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가끔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 리더인 백뚜르 목사와 디아나 사모의 교회, 신학교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그 외의 사역들

영어교사 아이누라는 새학기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교사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오랜 경력의 교사도 받지 못한 상을 받음으로 짧은 경력의 타지에서 온 이방인 교사를 동료 교사들과 부모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사진과 함께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동안 외롭게 지내왔던 어려운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귀한 교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아이들의 엄마 샤한은 알콜 의존도가 더 심해지고 가출도 하는 등 어려움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의 건강도 좋은 편은 아니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중 알콜 중독자 치료 센터를 알아보고 치료를 받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월 프로그램이지만 한 달에 6백불 정도하는 비용이라 우선 남편과 가족이 돈을 모아 한 달만 지불하고 입소시켰습니다. 한 달 지나는 동안 몸과 정신이 안정되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어가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되고 3개월 프로그램을 다 마치기까지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 뿐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시는 할머니의 건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고 그동안에 누적되어온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알게 되면서 복잡해졌는데 샤한에 대한 마음이 쉽게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할머니가 한 달만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결심과 함께 이 기간에 딱 맞춰서 특별한 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샤한을 위해 주신 것이라 믿고 2개월차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3개월차에도 할머니의 건강과 마음이 준비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되고 다섯 아이들의 건강한 엄마로 돌아오기를 위해 간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